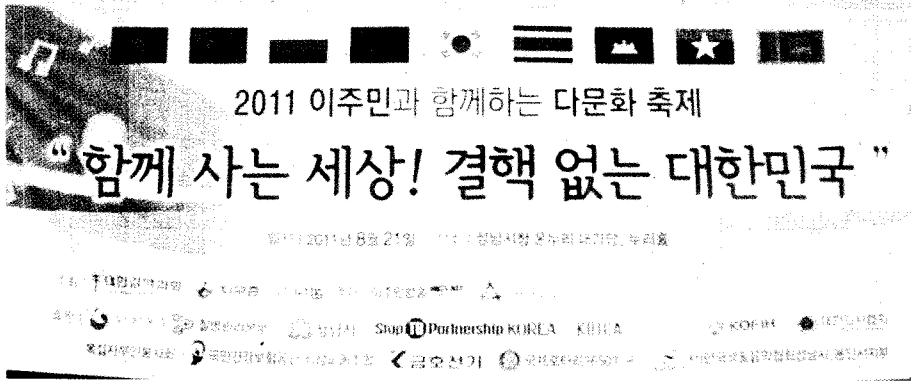


글과 사진. 박관호 결핵퇴치운동본부



함께사는 세상! 결핵 없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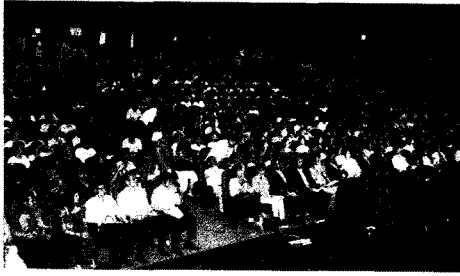
8월 21일. 아침부터 성남시청은 사람들의 오가는 손길로 분주했습니다. 전날 조금 행하게 보였던 시청 건물의 로비와 야외 공간에는 행사를 위한 시설물들이 하나 둘 설치되며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이른 아침임에도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일요일. 평소에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이 많은 손님들로 가득 메워지길 기대하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칠 새라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날 대한결핵협회와 지구촌사랑나눔이 공동주최한 2011 이주민 다문화 축제, “함께 사는 세상, 결핵 없는 대한민국”은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여러 국적의 이주민과 일반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길 만큼 심각하지만, 여러 질병들 가운데 소외되어 관심 받지 못하는 질병 결핵.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주민, 다문화가정.

어쩌면 비슷한 처지라고도 볼 수 있을 이 두 가지 이슈는, 이주민들에 대한 결핵 치료와 관리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아서 결핵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로 절



우리 사회의 일원이
결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하여
대한결핵협회와
지구촌사랑나눔이
함께 힘을 합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묘하게 얽혀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사회의 일원인 이들이 결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 공감하여 대한결핵협회와 지구촌사랑나눔이 함께 힘을 합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맞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행사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야외에 마련된 다문화 체험 부스를 통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의상과 공예품을 구경하고, 음식을 맛보는 등 각국의 문화를 즐기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방식으로 진행된 이주민 커플들의 혼인식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야외무대에서는 여러 나라의 노래와 악기연주가 선보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는 건강, 취업, 법률 및 고충 상담을 위한 부스가 설치되어 여러 기관/단체의 협조로 운영되었으며,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STOP-TB Partnership KOREA의 파트너인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의사협회도 참여하여 결핵 예방퇴치를 위한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소속의사들이 직접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상담을 맡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누리홀에서 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600석 규모의 관객석이 모두 차고도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발 디딜 곳



없이 가득 차, 이를 통제하는 진행요원들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에는 행사를 주최한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와 함께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후원한 이재명 성남시장, 고흥길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성광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벤트로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사연을 듣고, 그 가운데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의 바램을 이뤄주는 'Make wish, Dream come true'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김경식(가명)씨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지구촌어린이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는 합창공연을 펼쳤으며, 몽골 전통악기 연주와 태국 전통춤도 선보여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념식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제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한국의 대중가요와 각국의 노래를 부르며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래실력을 뽐냈습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함께 몇 가지 간단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결핵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지내며 집단 생활이 빈번한 이들의 결핵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결핵검진이 시작되자, 평소 건강을 돌아볼 기회가 적었던 이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Onestop 결핵검진이동차량 주변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쓰는 이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한국말이 비교적 능숙한 이주민들이 동료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며 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하루 동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저마다 서



우리 사회 곳곳, 결핵의 위협에
취약한 이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핵의 발생과 사망률은
줄어들기 시작하여,
“결핵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나 자신이 이방인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이주민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화합하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자리로 마
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웃고 즐기는 다양한 국적의 얼굴들을
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
바로 결핵! 행사장에 결핵 사진들을 전시하고 각국의 언어로 제
작된 결핵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여 이주민들에게 결핵의 위험
성을 일깨웠고, 결핵 검진을 통해 많은 이주민들이 예방과 치료
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결핵의 위
협에 노출된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핵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행사로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 결핵
의 위협에 취약한 이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다면 결핵의 발생과 사망률은 줄어들기 시작하여, 결국 “결핵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년에도 이 같은 행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기대
해보며, 그때까지 STOP-TB Partnership KOREA와 대한결핵
협회가 결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